

시인의 마을

오월의 커피

새벽을 여는 소리가 나지막이 다가온다 오늘도 여전히 졸음 서야만 향기에 젖을 수 있다 이놈의 것이 두어리고 새벽부터 눈을 뜰 때마다 욕구망을 타고 흐르게 한다



박 여 범

시인 ·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다시는 미치지 말아라 다짐을 한다 그와의 거리두기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눈동자가 풀리는 아슬아슬한 시간의 연속이다

당뇨가 담배가 그렇듯이 금단이가 무섭다 참다가, 참다가, 결국, 고소한 커피 향을 입안 가득 채운다 이길 수 없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처럼?

차가운 아스팔트에 퍼질러 앉아 100원이면 달콤한 학생회관 앞 자판기 커피 마시며 부르던 그 노래, 아침이슬을 잠미 피는 오월이면, 독재 타도를 외치며

-두 주먹 하늘 향해 쫓아대던 그 날처럼 -언제 다시 불러볼 수 있을까? -아직 다들 살아 있었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 답답해? -어휴?

잠미 피는 오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마시던 자판기 커피는 먼저 간 친구처럼 그 커피 향을, 그 흔한 카페에서 많기도 많은 커피 메뉴판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어

기계처럼, 드르르드르르 손으로 원두를 깬다 구수한 송송갈이 내린 방울방울 커피 명물이다 그 마디 마디마다 못다 한 날들이 흐른다 주변은 시골벽처럼하고 아직도

새벽은 안개다? 마치 로봇이 된 듯 커피 없인 일분일초도 살 수 없다는 중독처럼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졸음 서야만 한다

새벽을 여는 구수한 냄새가 마약처럼 말초신경을 마비시킨다 오늘도 여전히 졸음 서야만 한다 예고, 예고, 한심해라 커피 향, 그 향기에 젖기 위해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박여범 시인 '오월의 커피' 전문-

|| 시(詩)를 담다 ||

눈이 마구먼 곳에는 카페가 있다. 신지어 한 건물에 1층에서부터 3층

까지 카페가 영업 중인 곳도 있다. 카페는 세제인의 기호식품이 되었다. 그중 유독 심하게 커피를 좋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언제부턴가 나의 손에는 커피가 딱 붙어 있다.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시간에 상관없이 커피를 갖고, 내리고, 마시기를 반복한다. 때론, 귀찮아 기분에 졸음 서서 커피를 포장해 워나.

가난해서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던 5월이 아련하다. 자판기 커피가 맛이 있었다.

누구나 마시던 그 자판기 커피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단돈 100원이면,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었던 커피, 그 커피가 그리워진다.

알랑알랑 기억났다 정치 이야기에 학내민주화에 운동 관능과 부쟁이 난무하던 시절의 커피다. 그래서 너 달콤하게 다가온 커피였는지 보려나. 그때의 동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답이 없나. 어렴풋이 바람을 타고 전해오는 소식만이 귀를 간질거리게 한다.

흔쾌한 직장의 풍경은 커피 나눔이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을 다 동원하며 최대한 맛을 느껴려 한다. 정철적으로 커피를 마신다. 커피 향, 그 향기에 젖기 위해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사설

서거석의 에듀페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들의 학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에듀페이'를 통해 적시에 보편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에듀페이를 시행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총 30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교육비 지원은 사용 범위가 한정되고 혜택도 적었다"면서 "앞으로 학습비 부담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갖는 일이 없도록 교육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에듀페이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중·고등학생 교복지원비(입학지원비), 현장체험 학습비(수학여행경비) 등 기존의 지원금에 더해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을 신설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학생들의 입학과 일상적인 학습 준비, 졸업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필요시에 맞게 지원하는 데 부족했

다. 또 특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보편적 공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여러 문제에 노출돼 왔다.

기존 교복지원비 역시 반드시 교복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서 예비후보는 입학지원비의 경우 초·중·고등 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생에게 20만 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에듀페이는 지역 은행과 제휴를 맺어 에듀페이카드(체크카드)를 통해 교육, 문화 활동 등 특정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별 지원금도 협의를 통해 에듀페이 카드에 탑재해 사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학업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미래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전북 교육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선미촌 도시재생 민간협

전주시 선미촌 정비 민간협의회가 선미촌 도시재생 민간협의 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미촌 정비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말 성매매 업소 영업 제로화가 달성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선미촌 도시재생 민간협의회'로 변경했다. 협의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정관 개정 및 신규 위원 위촉 등 조직도 정비했다. 관계자들은 선미촌 성매매 업소 영업 제로화와 기반 시설 및 거점 공간 확충에 주목했다.

'선미촌 2.0'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각 기관별로 추진되는 사업 공유를 통해 서노송 예술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로 돌봄 플랫폼, 서노송 예술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성 평등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뜻밖의 미술관·놀라운 예술터 운영 △불철서사 운영 △새 활용 센터 도시부 운영 △성 평 등 전주 운영 및 사업 계획 수립 △노송 천사마을 주민협의회

운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 △선미촌 정원 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1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김 총리 방문에는 조선희 성평등전문 소장, 임우자 불철서사 대표, 장근범 뜻밖의 미술관 센터장,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우정희 현장상담소센터 센터장, 원민 사회혁신센터 센터장, 박정원 선미촌 정비 민간협의회 위원 등이 동행해 관심을 가졌다.

전주시는 그동안 '선미촌'의 성매매 업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했다. 그 자리를 인편 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 장소 및 서점, 미술관 등으로 재탄생 시켰다.

특히 민관 협치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완전 폐쇄 하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 여성 인권과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반영 돼 속도감 있게 도시재생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거리에 나뒹구는 유독성 거품



27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모스케라 로스 푸엔테스의 빌시야스 강에서 발생한 거품이 휘날리는 길가에 개를 동반한 주민들이 앉아 있다. 현지 당국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가정용 세제 속 화학물질과 섞이면서 유독성 거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헤르손 인민공화국 만들 것'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완전히 장악한 러시아가 '위장' 주민투표를 시행해 이 지역을 '헤르손 인민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헤르손 주민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쓰인 손팻말과 깃발을 들고 반러시아 집회를 하는 모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